

자동차 부품업체 현장방문
2018년 11월 13일(화) 14:30

2018년 11월 13일(화) 15:00 이후
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금융위원장 모두발언

2018. 11. 13.

금 융 위 원 회

※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인사 말씀

- 여러분 반갑습니다. 금융위원장 최종구입니다.
-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행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권은 올해 8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하였고, 첫 투자대상으로 이 곳 '서진산업'이 선정되었습니다.
 - 펀드 조성 단계부터 첫 투자가 이루어지기까지 여기 계신 금융권 관계자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.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또한, 오늘 이 자리에는 자동차 부품회사 대표님들도 참석해주셨습니다.
 - 오늘 이 자리가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구조혁신과 위기극복을 위해 금융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하는지 업계와 금융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
주력산업의 위기 및 환경변화

- 여러분! 최근 자동차, 조선 등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주력산업이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 - 저는 지난 10월 자동차 부품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재 회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생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.
 - 은행권 여신의 만기연장, 신규대출 등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, 해외 판로 개척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영실적 개선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
- 하지만, 최근 주력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
 - 디지털化, 플랫폼 경제 등 경제 전반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산업패러다임 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
 - 미국과 중국간 통상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새로운 무역지형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

- 이러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구조혁신을 이루어낸다면, 현재의 위기상황은 우리 주력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.

주력산업 구조혁신 추진방향

- 주력산업의 구조혁신을 위해서는 우선, 민간 주도(Bottom-Up)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.
 - 기업들 스스로 글로벌 트렌드 분석을 통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업과의 융합 등 新경영전략 수립에 힘써야 합니다.
 - 특히, 대기업은 중소 부품업체를 상생과 혁신을 위한 공동체로 인식하고, 건전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한발 앞서 노력해야할 것입니다.

□ 또한, 금융권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.

- 이는 제가 취임 초기부터 주장해 온 생산적 금융과 같은 맥락입니다.
- 비효율적인 분야에 흘러가는 자금을 생산적·혁신적 분야로 물길을 바꿈으로써, 실물발전 지원이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.

□ 시중은행 등은 특정 산업에 리스크가 감지된다고 그 산업의 여신을 일괄 회수하기 보다는,

- 경쟁력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선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할 것입니다.

□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도 위기극복을 위한 유동성 지원 및 주력산업의 구조혁신을 위한 금융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.

- 11월부터,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1조원 규모의 보증프로그램을 가동중이며
- 관계부처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중에 있습니다.

주력산업 구조혁신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

- 여러분, 저는
금융권 내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자본시장이
주력산업의 구조혁신을 위해서도
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.

- 우선, 자본시장으로부터는
제품 및 기술의 차별성,
원청업체에의 장기납품 가능성 등
해당 기업의 핵심경쟁력에 대한 정보를
선별하는 기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
 - 하지만 이는 일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
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
수많은 구조혁신 경험이 쌓여야 하며

 - 회계 및 법률 시스템, 정보 네트워크, 산업분석 등
인프라 측면에서도
'축적의 시간'이 필요할 것입니다.

- 다음으로, 자본시장은
기업별 특성에 맞게 구조혁신을 설계함으로써
맞춤형 가치제고가 가능토록 할 수 있습니다.

-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구조혁신은
재무전략, 사업부 분할, 미래투자과 혁신역량 집중 등
기업 내부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습니다.
- 또한, 유사 업종간의 M&A뿐만 아니라,
신규자금 조달방식을
PDF (Private Debt Fund), LP자금과의 연계 등을 통해
다양하게 설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.

□ 이와 같이,

- ① 구조혁신 대상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기능과
- ② 기업의 구조혁신을 설계하는 기능이
자본시장이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는
핵심 부가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

- 따라서 저는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
선제적이고 기업 정상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
'구조혁신'이라 부르는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.

□ 이는 일부 플레이어의 노력만으로

단시간 내에 달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.

모든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

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.

-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영기관인 한국성장금융과
유암코 뿐만 아니라,
다수의 Turn-around(경영정상화) 운용사들이
시장에 출현해야 하고,

- 또한 이들 운용사들의 전문성을 높여 줄 수 있는 교육·인재육성 프로그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.

- 자본시장에서 기업 구조혁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구조혁신펀드, 유암코도 주력산업의 구조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.

- 은행들도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혁신에 대한 방관자가 아닌 주인으로서, 보유한 기업채권을 자본시장에 공급하는 기능과 PEF 투자와 LP자금 투자 등에서 맡은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.

- 정책금융기관들도 기존 정책금융 차원의 프로그램 외에 자본시장 플레이어들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지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.

마무리 말씀

- 경제학자 슈페터는
기업가의 혁신적 정신을 일컬어
“자기 왕국을 건설하려는 의지와 꿈”이라고
표현한 바 있습니다.

- 앞으로 자본시장과 기업구조혁신펀드가
그 의지와 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
산업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

- 끝으로,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선별과정인
‘옥석가리기’를 통해
玆으로 선정된 서진산업이
PEF와 높은 수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
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.

- 감사합니다.